

●대림 제 3주일 강론 우리가 들어야 할 선물

프랑스의 박애주의자이자 집 없는 이들의 아버지였던 ‘아베 피에르(1912~2007) 신부님’은 당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몇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부유했던 프랑스 리옹의 어린 시절에 신부님의 아버지께서는 해마다 대림시기가 시작되면 일찍감치 거실에 크리스마스트리와 구유를 장식하고 가족 모두에게 각기 다른 동물 인형을 나누어 주며 매일 저녁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에 그날 하루 가족들이 행한 착한 일들을 발표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발표한 착한 일들이 모두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의 인형은 구유안의 아기 예수님께 한 발짝 가까이 가도록 이동시켜 주셨고, 성탄 때까지 아기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이동한 인형의 주인공 가족에게는 가장 큰 성탄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피에르 신부님과 형제들, 가족들은 얼마나 아기 예수님께 자신들의 인형이 가까이 가도록 애썼는지 모른다며, 성탄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며, 아름다운 성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분명 아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그 옛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던 들판의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은 구유를 향하여 찾아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닌, 아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선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할 선물은 가난과 고통으로 얼룩진 이들과 함께 하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이

든 반드시 선한 일을 실천하여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기다림은 마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 중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기는 슬픈 일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 22, 1~14 참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선물과 입어야 할 예복은 사랑의 나눔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해마다 대림 3주일이면 자선주일을 지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세상의 버려진 이들, 가난과 소외와 장애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그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구세주께서 오실 때 누구보다 먼저 고통 받는 이들이 환호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이사 35, 5~6).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에 대한 권모술수에 밝아야 한다는 교활함의 소리로 비칠 수 있습니다.

실로 역사의 많은 이들이 줄을 잘못 섰던 까닭으로 죽음이나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를 신앙에 적용시켜 보면 그 또한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오시는 주님을 소개하기에 앞서 군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마태 11, 7~9)

진정 우리들은 어느 쪽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러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하였습니까?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기껏 사라져 버리는 세상 것들 때문입니까? 그것들은 결국 사라져 버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네 삶에 참된 중심이 되어주지 않고 늘 흔들릴 뿐입니다. 때문에 그 끝은 허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화려한 옷이나 화려한 왕궁의 권력과 세상 지위나 화려한 칭송의 명예 입니까? 그것들 역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마냥 위태롭기 그지 없습니다.

그 화려함 역시 끝내는 빛이 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슬픈 운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분명히 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힘주어 말합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마태 11, 5).

요한은 세상 시련과 아픔,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실 가난의 주님, 겸손의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함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같은 기다림이 진정한 대림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배광하 신부 <춘천교구 계재마니 피정의집원장>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대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 대림에 바치는 기도

- | |
|--|
| 우리를 구원하신 천상은총이
우리게 기쁜구원 내려줄것을
위대한 예언자들 미리알고서
예수님 오실것을 선포하였네 |
| 다가올 기쁜영광 미리알리는
진실한 예고소리 울려퍼지는
이아침 유난히도 빛을발하고
기쁨이 마음에서 솟구치누나 |
| 사람들 범죄한후 처음오심은
세상을 처벌하기 위함아니고
쓰리고 아픈상처 싸매주시며
없었던 모든사람 구하심이네 |
| 세말에 다시오심 예고하나니
심판날 성인에게 상급주시고
행복한 하늘나라 문을 여시려
예수님 문앞에서 기다리시네 |
| 영원한 하늘의빛 이미퍼지고
구원의 아침새별 반짝이나니
찬란한 천상빛이 우리를불러
천국의 시민되라 초대하시네 |
| 예수님 당신만을 찾고있으니
당신의 천주성을 보여주소서
그모습 영원토록 바라봐오며
세세에 찬미노래 부르오리다. 아멘 |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성탄 대축일 판공성사

2차:12월 16일(셋째 주일)-오후 4시~미사 전까지
3차:12월 23일(넷째 주일)-오후 4시~미사 전까지/
미사 후-30분

(가능하시면 미사전 시간을 이용해주세요)

◎송년 확대 사목회의

일시: 12월 16일(셋째 주일)-미사 후
장소:박재영 형제집(307 Castle field, waterloo)
비고: 각 부서 장/차장, 총무 및 각 구역장,
울뜨레아 간사, 총무 포함

◎ 2008년도 현금 봉투

새해 현금 봉투를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가세요.
새로 필요하신 교우는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즉시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서원일 재정부장

◎ 바느질기도회

12월 26일(수) 오후 7시30분/ 박순웅 형제집

◎ 4구역 송년모임

12월 22일(수) 오후 8시 / 윤성호 형제집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 친선볼링클럽 안내

- ▶기간: 12월 3일~2008년 3월말 까지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Brunswick Bowling Centre (전년과 동일)
- ▶문의: 윤명원 행사부장

◎ 판공성사 안내

18일 예수성심, 19일 한 맘

20일 본당

◎ 성탄 미사 안내

12월 24일 월요일 밤 10시 성탄 성야미사
12월 25일 화요일 오후 5시 성탄 본미사
오후 6시 친교식사
오후 7시 구역별 장기자랑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미사와
신년 인사 오후 5시 미사 및 인사
오후 6시 친교식사

◎세계성체대회 참가신청

2008년 6월 20-22일 퀘벡에서 개최되는
세계성체대회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 30명 참가비 : \$ 350

함께 보내는 시간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에게 시간을 내줘야 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 친밀함이 생길 수
없다.

"사랑은 시간을 내주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다.

시간표를 창조적으로 짜야 한다.
시간의 여유분을 만들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재미있고 또 만나고
싶다면
친밀함이 시작된 것이다.

- 이무석의 《친밀함》중에서 -

* '사랑은 시간을 내주는 것'이라는 대목이
가슴을 찡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간절해지
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동안, 온 몸의 세포가 살아 있
을 때
당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를 기원하며
'창조적 시간표'를 다시 짜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야 시간도 생기니까요.

미 사 전 레

해 설 김근효 차주 해설 이명희

화 답 송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의 성령께서 내 위에 내리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도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88) 임하소서 구세주여
봉 헌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성 체 (162) 신묘하온 이 영적
퇴 장 (95) 별들을 지어내신 주

	독	서
12월 16일	서원일	서소영
12월 23일	정경래	정문진
12월 30일	노동원	노성은

	봉	헌
12월 16일	이동기	이정숙
12월 23일	서원일	서소영
12월 30일	정경래	정문진

	복	사
12월 16일	경은	한힘
12월 23일	하람	현재
12월 30일	지홍	지헌

2007년 12월 9일 현금 내역	
주일현금:	\$ 785.00
Total:	\$ 785.00

2007-50

2007. 12. 16.

대림 제 3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